<h1>나 혼자만 레벨업-36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mf74820feb4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6화</p>  
<p>'이럴 때 말이라도 걸어 주면 좋을 텐데.'</p>  
<p>아무 말도 없는 진우가 왠지 야속하기까지 했다.</p>  
<p>결국 멈춰 선 주희가 어렵게 먼저 말을 꺼냈다.</p>  
<p>"저기... 사실 오늘은 아무것도 못 넘길 것 같으니까 이건 돌려줄게요."</p>  
<p>진우는 주희가 건네 마정석을 받아 들었다.</p>  
<p>지하 신전에서 그녀에게 맡겼던 마정석이었다.</p>  
<p>마정석을 건네는 주희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.</p>  
<p>'그게 며칠 전 일이라고... 오늘 또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니.'</p>  
<p>주희는 겁이 많은 편이었다.</p>  
<p>오늘 아무것도 못 넘길 것 같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.</p>  
<p>"그래도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? 굳이 지금 돌려줄 필요는 없는데."</p>  
<p>주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"저 다음 주에 집으로 내려가거든요."</p>  
<p>헌터를 그만둔다더니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모양이었다. 진우가 안타깝다는 표정을 한다.</p>  
<p>"그 사고 때문에?"</p>  
<p>"꼭 그런 건 아니지만..."</p>  
<p>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주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.</p>  
<p>진우는 급히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.</p>  
<p>"집은 어디예요?"</p>  
<p>"부산이요. 저기 진우 씨."</p>  
<p>갑자기 주희의 눈빛이 진지해졌다.</p>  
<p>"네?"</p>  
<p>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진우도 얼굴에서 웃음기를 지우고 덩달아 진지한 얼굴이 됐다.</p>  
<p>주희는 진우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.</p>  
<p>생명력이 느껴지는 두 눈. 지하 신전에서 모두가 절망에 떨고 있을 때, 진우의 두 눈만은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었다. 주희는 가장 가까이서 그 눈을 보았다.</p>  
<p>'살아남겠다고 외치는 것 같았지.'</p>  
<p>그 눈이 놓치지 않은 희망의 실마리는 그녀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몇 번이나 구해 냈다.</p>  
<p>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일이었다.</p>  
<p>두근두근.</p>  
<p>그날 일이 떠오르자 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.</p>  
<p>'안 돼...'</p>  
<p>적성이 맞지 않아 헌터 일을 그만두는 것에 미련은 없었다. 하지만 앞으로 진우를 만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은 무척이나 아쉬웠다.</p>  
<p>'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...'</p>  
<p>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다.</p>  
<p>그런 일에 미련을 두면 괴로워지기 마련.</p>  
<p>주희는 결국 배시시 웃으면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아니에요. 혹시 부산에 내려올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. 제가 회 사 드릴게요."</p>  
<p>"좋죠."</p>  
<p>진우가 미소 짓자 주희도 따라 미소 지었다.</p>  
<p>그렇게 주희는 하고 싶은 말을 남긴 채 간단한 작별 인사를 끝내고 돌아섰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집까지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주희를 보내고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다.</p>  
<p>멀리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.</p>  
<p>그곳 9층에 집이 있었다.</p>  
<p>주차된 차들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, 나이 든 목소리가 발목을 잡았다.</p>  
<p>"902호 청년."</p>  
<p>늙은 경비 아저씨였다.</p>  
<p>오랫동안 봐 왔던 경비 아저씨기에 진우는 스스럼없이 인사를 건넸다.</p>  
<p>"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?"</p>  
<p>"오늘 내가 숙직이라."</p>  
<p>아하, 하고 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곧 경비가 경비실에게 택배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왔다.</p>  
<p>"이거 진우 청년한테 온 거야."</p>  
<p>"아, 감사합니다."</p>  
<p>보낸 이가 협회로 되어 있었다.</p>  
<p>'오늘이었나?'</p>  
<p>협회에서 보낸 헌터 폰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.</p>  
<p>진우는 상자에서 폰을 꺼냈다.</p>  
<p>반짝거리는 새 폰.</p>  
<p>요새 헌터들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과하다 보니 각성자가 아니면서도 헌터 폰을 사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.</p>  
<p>'사려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, 그걸 또 빼돌려서 팔아먹는 놈들은 대체 어떻게 된 정신머리야?'</p>  
<p>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라고 하더니.</p>  
<p>하여튼 협회고, 군대고 사람이 모인 곳은 이 비리가 문제다.</p>  
<p>비리가 생겨서 돈이 새어 나가면 샌 만큼 지원이 줄어들고, 지원이 줄어들수록 환경이 열악해진다.</p>  
<p>결국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다.</p>  
<p>'그래서 걱정했지만...'</p>  
<p>다행히 새로 받은 폰에는 하자가 없어 보였다.</p>  
<p>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할 일도 없고 해서 폰의 전원을 켜 보았다.</p>  
<p>부재중 메시지가 잔뜩 와 있었다.</p>  
<p>'이걸 언제 다 확인하나.'</p>  
<p>그런데 두 개의 번호가 유독 많이 눈에 띄었다.</p>  
<p>둘 다 익숙한 번호는 아니었다.</p>  
<p>하나는 전화를 많이 했고, 하나는 문자를 많이 보냈다.</p>  
<p>'이렇게 연락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?'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우선 메시지 쪽을 먼저 확인해 보았다.</p>  
<p>\_안녕하세요, 그때 병원에서...</p>  
<p>\_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면...</p>  
<p>\_혹시 제가 귀찮게 굴었나요? 저는 그냥 가볍게 이야기나...</p>  
<p>누군가 하다가 뒤늦게 기억이 났다.</p>  
<p>그때 병원에서 번호를 건네주었던 간호사 아가씨였다.</p>  
<p>'이름이 최유라였나?'</p>  
<p>귀찮게 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 답장을 하는 순간, 일이 상당히 귀찮아질 것 같은 예감이 팍팍 들었다.</p>  
<p>'그러니까 이건 패스하고...'</p>  
<p>다음은 전화를 많이 건 쪽인가?</p>  
<p>진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.</p>  
<p>컬러링으로 경쾌한 최신곡이 시끄럽게 흘러나왔다.</p>  
<p>누구 전화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.</p>  
<p>통화는 금방 연결됐다.</p>  
<p>-여보세요.</p>  
<p>역시나.</p>  
<p>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아서 헛웃음이 살짝 흘러나왔다.</p>  
<p>"나다. 이제부터 이리로 연락해."</p>  
<p>-아! 폰을 받으셨군요. 형님!</p>  
<p>유진호였다.</p>  
<p>번호를 메모해 두긴 했는데 여태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어 본 적이 없어서 생소했던 거였다.</p>  
<p>유진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-마침 제가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, 형님. 공대원들을 구했으니 내일부터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!</p>  
<p>목소리만 들어도 기뻐하고 있는 유진호의 얼굴이 그려졌다.</p>  
<p>진우도 씩 웃었다.</p>  
<p>"오냐. 내일 보자."</p>  
<p>뚝.</p>  
<p>진우가 전화를 끊자 타이밍 좋게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스르르 열렸다.</p>  
<p>팅.</p>  
<p>드디어 내일부터 본격적인 레이드가 시작된다.</p>  
<p>그리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'최대한 빨리 레벨을 올리자.'</p>  
<p>레벨을 올리고, 능력치를 높여서, 누구보다 강해진다.</p>  
<p>강한 헌터가 되면 돈, 명예, 권력 모든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. 내일이 바로 그 첫걸음이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미국 동부.</p>  
<p>늦은 밤.</p>  
<p>북미에서 손꼽히는 길드 '스케빈저'의 메인 헌터이자 S급 헌터인 황동수는, 방금 전 자택에서 잠들기 직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.</p>  
<p>"...형이 어떻게 죽었다고? 천천히, 자세히 말해 봐."</p>  
<p>형의 이름은 황동석.</p>  
<p>얼마 전 C급 게이트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단다.</p>  
<p>"...형의 공대원 멤버 여덟 명이 전원 사망하고 나머지 두 사람만 살아 나왔다고?"</p>  
<p>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각각 D급과 E급이다?</p>  
<p>뭔가 냄새가 났다.</p>  
<p>자신이 아는 형은 약한 팀원을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 아니었다.</p>  
<p>게다가 그 멤버가 보충 인원이라면?</p>  
<p>말할 것도 없었다.</p>  
<p>그런데도 D, E급 헌터들이 살아 나오고, 형을 비롯한 C급 헌터들이 모조리 죽었다.</p>  
<p>'뭔가가 있어...'</p>  
<p>황동수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.</p>  
<p>비록 지금은 자신이 미국의 유명 길드에 스카우트되어 떨어져 있지만, 한국에 있을 때는 자신을 어느 누구보다 아끼고 챙겨 줬던 형이었다.</p>  
<p>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좋은 형제임은 분명했었다.</p>  
<p>'조금만 더 자리를 잡으면 이쪽으로 불러오려고 했는데...'</p>  
<p>그새 변을 당하다니.</p>  
<p>황동수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.</p>  
<p>"살아남았다는 두 사람 정보를 팩스로 보내 줘. 번호는..."</p>  
<p>황동수는 전화를 끊고 매니저의 번호를 눌렀다.</p>  
<p>곧 연결됐다.</p>  
<p>-미스터 황,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?</p>  
<p>"로라, 내가 한국에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지?"</p>  
<p>-진심이에요?</p>  
<p>"그래."</p>  
<p>목소리가 다시 이어지는 데는 약간의 정적이 필요했다.</p>  
<p>-...아직 한국과 헌터인 범죄자 인도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어요. 미스터 황은 미국 국적의 헌터니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고, 아마 정부와의 교섭으로 형량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.</p>  
<p>"다행이군. 일이 생겨서 한국에 좀 다녀와야겠어. 스케줄을 비워 줄 수 있나?"</p>  
<p>-하지만 미스터 황,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길드 업무가 마비됩니다. 무슨 일인지 제게 알려 주지 않겠어요?</p>  
<p>"개인적인 사정이라. 물론 길드에 피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. 내 스케줄이 언제까지 밀려 있지?"</p>  
<p>-2개월 후까진 꽉 차 있어요.</p>  
<p>"두 달이라... 좋아. 그 뒤로는 스케줄을 비워 줘. 많이도 아니야. 딱 2주. 2주 동안만 한국에 다녀올게."</p>  
<p>-...알았어요. 그런데 위쪽엔 뭐라고 이야기하죠?</p>  
<p>"형의 장례를 치르러 간다고. 위로 여행을 겸해서."</p>  
<p>-OK. 그렇게 할게요. 하지만 미스터 황... 혹시라도 제가 도움될 만한 일이 있...</p>  
<p>딸깍!</p>  
<p>황동수는 전화를 끊었다.</p>  
<p>위로나 충고.</p>  
<p>어떤 쪽도 달갑게 들을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다.</p>  
<p>위이잉!</p>  
<p>마침 부탁했던 팩스가 도착했다.</p>  
<p>황동수는 팩스에서 나오는 문서를 받아 들었다.</p>  
<p>거기엔 헌터 둘의 얼굴이 찍힌 사진과 이름, 간단한 프로필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.</p>  
<p>"D급 헌터 유진호, E급 헌터 성진우."</p>  
<p>황동수는 두 사람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각오를 다졌다.</p>  
<p>'이 둘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.'</p>  
<p>그리고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...</p>  
<p>"거기서 살아 나온 걸 후회하게 될 거다."</p>  
<p>황동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.</p>  
<p>6. 이상한 레이드</p>  
<p>다음날 아침.</p>  
<p>전화를 받고 내려가니 앞에 커다란 봉고차가 한 대 서 있었다.</p>  
<p>"...?"</p>  
<p>뉘신데 남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냐고 묻기도 전에 운전석 창문이 알아서 스르르 아래로 내려갔다.</p>  
<p>싱글싱글 웃고 있는 그 얼굴은... 유진호였다.</p>  
<p>"형님, 타시죠!"</p>  
<p>유진호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봉고차를 탁탁 두르렸다.</p>  
<p>전날부터 모시러 온다고 해서 벤츠라도 끌고 오나 했는데...</p>  
<p>이건 어딜 봐도 평범한 승합차였다.</p>  
<p>평범한 것치고는 좀 크긴 하지만.</p>  
<p>"너 재벌 2세라고 하지 않았냐?"</p>  
<p>"제 차로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띌 것 같아서요. 레이드할 때 쓰려고 한 대 샀습니다."</p>  
<p>어쩐지 차에서 반짝반짝 광택이 나더라니.</p>  
<p>'뽑은 지 얼마 안 된 차였군.'</p>  
<p>아침부터 집 앞으로 찾아오는 성실함에, 눈에 안 띄도록 새 차까지 준비하는 조심성까지.</p>  
<p>유진호는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.</p>  
<p>그만큼 이번 일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겠지.</p>  
<p>새 차 구경하는 걸 오해한 유진호가 걱정스레 물었다.</p>  
<p>"혹시 이런 차는 불편하십니까, 형님?"</p>  
<p>"전혀."</p>  
<p>딱 잘라 말하고는 조수석에 올라탔다.</p>  
<p>"출발합니다, 형님."</p>  
<p>레이드 첫날이라 기분이 좋은지 유진호는 연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핸들을 이리저리 돌렸다.</p>  
<p>한참을 달리던 차가 공터에 멈춰 섰다.</p>  
<p>끼익.</p>  
<p>"형님, 여깁니다."</p>  
<p>약속 장소에는 여덟 명의 헌터가 대기하고 있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